野聲錄

편집실

◎ 제주도행

三月十日 釜山서 만난 洪兄의 자심한 권고로 합께 제주도행 뱃간에서 콩나물 取扱을 받고 十八時間만에 제주읍에 닿으니 한라산이 큰암탉처럼 웅크리고있다 제주도란 決局 한라산이고 사람들이란 그주변에서 뱅뱅도는 병아리 새끼같다

◎ E. C. A. 車를 얻어타고 七十里 되는 한림向 가는길에 눈에 띠이는것은 한라山을 원통 돌담으로 둘러싸고 洞里마다 집마다 도야지굴까지도 돌담 그길이는 萬里장성이 問題안이다 돌 돌 돌 밭이라야 돌밭을 고양이 이마만한 面積 그리고 女人의 나라다 牛車도 女人 지게군도 女人 밭가는것도 女人 장거리를 보니 全部 女人뿐이요 男子란 늙은이가 가끔 한명씩 보일뿐 女人 女人 女人

나는 그들을 눈물없이는 볼수없었다 아 民族의 永遠한 슬픔의 날 四·三事件 그때에 죽은 장정만 六萬名이라나 그럼 三十萬도 못되는 人口에 태반이 죽은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쪽은 팔지삼 남어지는 國軍으로 남은 것은 과부 老처녀 그렇게 보니 물마다 내 밭는 곡마다 피묻지 않은것이 없는것 같애 소름이 끼치다 아 슬퍼해야한다 그 罪人을 究明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라山이 분노의 불은 토할것만 같드라 아 共產당諸君 군물은 얼마나 高貴한 理想이든간에 사람을 위할것인데 이민족이 이렇게 비극을 얼으키고야 무슨 面目에……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無數한 별들은 저 못 과부와 고아들이 너를 노리는 원한의 눈초리다 땅을 보아라 돋아나는 풋 草木은 너를 겨누는 복수의 칼이란다 바다를 보아라 그 파도는 네게 向한 분노의 몸부림이란다 너 이제 피 묻은 칼을 들고 어디로 달리려느냐 어디 숨으려느냐 너 이제라도 손을 들지 안으면 地球가 입을 벌려 너를 삼키리라

다음은 바람이 많다 열흘 계속해서 바람 안부는 날이 없다 바람에 진동 하는 바다는 이도민을 왈칵 삼켜 버릴 까봐 조바심이 난다

이르되 제주도의 특증은 三多라드니 果然 石多 女多 風多 이다

◎ 洪兄의 友情은 감격할수 밖에 그의 全生活은 眞實 그自體인듯 싶고 그의 生覺은 노도 같으나 그의 表現은 잔잔한 湖水 같다 나는 友情이란 永遠에 속한것이 아닌가 지옥이란 親舊가 없는 곳이 아닐가

◎洪兄의 소원에 따라 한림敎會 주최로 講演會 開催 三百을 넘는 連夜의 會衆의 熱心 講師를 흥분케 하다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

◎ 大邱에서 信友會 主催로 陸軍病院에서 몇날集會 저들은 나라를 爲해 一生에 불구가 되였것만 그 순간 머리에 떠오른 것은 釜山 大邱 거리의 풍경 모순이다 모순이다 정말 칸트의 實踐理性批判에 依한 要請의 來世라도 生覺 아니할수 없다 公平해야겟기에 公平해야겠기에

◎ 愛樂園을 찾다 禮拜後인데 鍾을 치니 보기좋게 모여든다 司會하는 青年이 無心코 데불에 손을 댄다 한 다른 青年이 황급히 눈짓 하여 그 손을 떼게 한다 그 병균이 『정한 귀중한이』에게 傳染될것을 염려 해서이다 말문이 막히다 정말 누가 病者인가 저들의 피부의 병균은 저렇게 조심 하는데 나는 내속의 병균이 옮겨짐을 염려 아니해도 좋은까

◎ 張兄과 함께 朴孝瑞博士를 訪問하다 大學時代 學生集會에도 數次 모시여 指導받든 亦是 尊敬해야할 韓國敎會의 어른이다 張兄曰 우리는 어떤 意識的인 決斷에서가 아니라 自然的으로 長老敎人이 된것처럼 敎會도 親分關係 地域關係로 選擇한것뿐인데 무슨과니 무슨 당이니 規定받는것은 어굴합니다 單只 우리生覺은 사도신경을 眞心으로 告白 할수있으면 한피 받은 兄弟라고 生覺하며 그外에는 다 지엽問題라고 生覺하는데 朴博士曰 그럴법도 합니다 左右間 그렇게 信仰的 努力을 하는것이 참 貴重합니다 나중에 正統神學者의 저서의 소개를 받고 大門밖까지 親切한 전송을 받다 오면서 한말 어떻게 좁 각파의 어른들이 자조 만나는機會를 가져 人情的 교류를 했으면 只今같은 불상사는 안생길것인데 에이 차라리 사랑이 없을 바에는 술이라도 한바탕 하고 가슴 헤치고 이야기 하면 오히려 시원할걸

◎ 全州의 일은 그동안 李兄과 郭兄이 계속 月曜集會는 인제는 軌道에 올라 百名좁의 會員이 生기다 金昌一 牧師 이해영牧師도 돕고 李兄이 主로 手苦『의심치 않은 信仰』『宗敎와科學』『以北傳道여행記』等

◎ 野聲에 對한 여론『大體 웬놈들의 소리냐 正體를 밝혀라『曠野의 소리가 아니라 書齋의 소리다』『좀더 쉬운말로 써주지』『聖經研究欄을 넣어주시요』『좀더 本格的인 研究論文을 실어주시요』에 에에 대답은 못잘하나 書齋 才操가요것뿐인데야

◎ 四月十一日(金) 本社主催으로全州中央敎會에서 苦難節記念禮拜로 모이다 郭兄의 指揮로 John Stainer의 Crucifixion (十字架에 달리主)를 연주 하다

◎ 어느 문둥환자의 기도『主여 내 몸이 다 썩어가도 내 목청만은 맨 나중에 썩게 하소서 내 죽는 순간 까지 그목청으로 당신을 찬양하리다』主여 우리는 이 손이 썩기까지 당신의 뜻을 적어서 전포하게 하옵소서

심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